

문화가 살아있는 장성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박차'

40개 사업 6억 3678만 원 규모... 김한중 군수 "문화·예술이 일상 되는 환경 조성 노력"

장성군이 올해 지역 내 16개 문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40개 사업 6억 3678만 원 규모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군의 지원은 △전통문화 계승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군민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주민을 아우르는 문화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지역 정체성을 살린 전통문화 사업과 생활 밀착형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배치해 문화·예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성문화원은 지역문화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향축전과 민속놀이 한마당 등을 운영하고, 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을

추진해 지역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데 힘쓴다.

장성음악협회는 지역축제 기간 열린 음악회를 선보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밖에 매현전통예술보존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국악협회 국악연수사업, 국악제 참가 지원, 장성문인·미술협회 전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춘·추향제와 백일장, 동학농민기념사업회 기념행사, 인성문화진흥원 인성문화교실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문화의 깊이를 더한다.

또 지역 내 유일한 미술관인 아인미술관 운영 지원을 통해 예술 기반 확충과 지역문화 여건 확보에 기여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참여형 문화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조연희 개인전 '빛이 잠시 머무는 시간' 장흥 이로우미 갤러리서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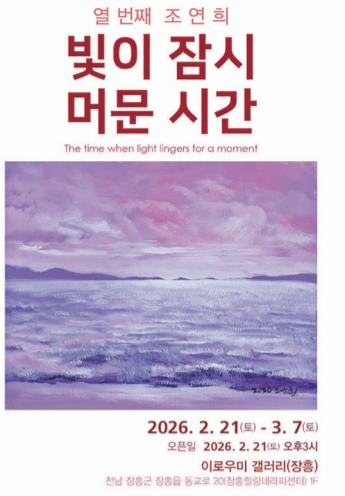
찰나의 빛이 머무는 바다의 풍경을 통해 내면의 그리움과 치유를 노래하는 조연희 작가의 개인전 '빛이 잠시 머무는 시간'이 지난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장흥읍 소재 '이로우미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장흥군농어촌신활력센터(센터장 배관세)가 후원하는 행사로, 장흥 힐링테라피센터 1층에 새롭게 조성된 다목적 전시 공간인 '이로우미 갤러리'의 세 번째 전시로 마련되어 지역 문화예술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에게 고향이자 아버지의 기억이 서린 '바다'를 주제로 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조연희 작가는 실제 존재하는 바다의 외형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회한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투영된 '빛의 잔상'을 화면에 정교하게 쌓아 올렸다.

특히 아크릴 물감의 특성이 빠른 건조를 활용해 수차례 겹쳐낸 붓질은 파도의 구체적인 형태를 지우는 대신, 그 자리에 남은 고요함과 숙명을 강조한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아득하게 흐려지는 표현 기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작가 개인의 기억을 넘어 관람객 각자의 내면 속 바다를 마주하게 한다.

조연희 작가는 작가 노트를 통해 "이 바다는 특정한 사건을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아무 말 없이 서서 바라보면 순간의 감각과 고요함이 화면 안에 남기를 바랐다"



2026. 2. 21(화) - 3. 7(토) 오후 10시 - 오후 3시 이로우미 갤러리(장흥)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33-1 장흥힐링테라피센터 1층

며, "보는 이가 이 풍경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각자의 기억 속 바다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전했다.

전시가 열리는 '이로우미 갤러리' 측은 "빛과 색이 머무는 풍경을 통해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작가의 섬세한 붓질이 전하는 잔잔한 울림을 직접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 오픈닝은 2월 21일(토)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조연희 작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북카페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장흥군 계몽

광양용강도서관은 '문학책의 해'를 기념해 어린이들이 문학과 공연예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8일(토) 오전 11시, 용강도서관 3층 마로극장에서 '어린이 입체낭독극' 공연을 개최한다.

'입체낭독극'은 문학작품을 각색해 전문 연극배우의 연기와 영상, 음향을 결합해 선보이는 복합형 낭독공연으로, 어린이들이 책 속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어린이 대상 그림책 「할머니의 용궁 여행」과 「슈퍼 히어로의 똥 닦는 법」 등 2편을 입체낭독극 형식으로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대학로 연극배우들이 주축

광양용강도서관, 어린이 입체낭독극 공연 개최

'할머니의 용궁 여행', '슈퍼 히어로의 똥 닦는 법' 등 2편 선보여

이 되어 문학과 공연예술 접목해 입체낭독극을 기획·제작·공연하는 '도키프로젝트'가 진행하며, ▲입체낭독극 소개 ▲「할머니의 용궁 여행」 낭독극 ▲「슈퍼 히어로의 똥 닦는 법」 낭독극 ▲기념촬영 순으로 운영된다. 관람은 광양시 어린이와 가족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람 신청은 2월 23일(월)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yang.go.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정원 마감 시 자동 종료된다. 한 아이디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가족 추가

신청은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용강도서관(☎ 061-797-385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어린이들이 문학과 독서에 흥미를 갖고 도서관을 자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용강도서관은 앞으로도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공연과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양용강도서관 어린이문학공연
입체 낭독극
배우들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재미있는 그림책!
2026. 02. 28. (토) 오전 11시
용강도서관 3층 마로극장

슈퍼 히어로의 똥 닦는 법
할머니의 용궁여행

관람 및 신청방법
(모집대상) 5세 이상 어린이 및 가족 70명 (관람료) 무료
(신청기간) 2026년 2월 23일(토) 오전 10시 ~ 2월 28일 (신청처)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lib.gwangyang.go.kr)
* 1인 1신청 원칙, 가족 4명까지 신청 가능(1인 이상 신청 후 잔여 인원 추가 신청 가능)
* 관람 신청비용은 2400원(공연료 1000원+관람료 1400원)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061-797-3859

광양용강도서관
Gwangyang Yongsang Library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역 예술단체의 활동 기반을 넓히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도시 락(樂)'을 본격 추진한다. 서구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봄(설렘 락) ▲여름(열정 락) ▲가을(감성 락) ▲찾아가는 아파트 작은음악회(함께 락) 등 4개 테마로 일상 속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과 광장 등에서 열리며 계절별 특색을 반영해 도심 곳곳에 문화의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서구, 지역예술인과 도심 속 문화공연 확대

대중가요·국악 등 다양한 장르 지역예술인 발굴... 27일까지 모집

특히 '찾아가는 아파트 작은음악회'는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 단지 특성에 맞는 공연을 제공해 생활권 내 문화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연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구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적 역량이 있는 40개 공연팀

을 모집한다. 이중 청소년·청년팀을 20% 이상 선정하고 장애인 예술팀도 최소 1팀 이상 포함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포용적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서구는 서류와 공연 영상 심사를 거쳐 대중가요·서양음악·국악·무용·미술·다원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연팀에는 평가 점수에 따라 공연

보상금을 차등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팀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njrhkr06@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채봉길 문화예술과장은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를 통해 시민이 일상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할기 기대한다"며 "도심에 활력을 더할 역량 있는 예술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광주 남구, 봄의 길목 '고싸움놀이 축제' 대동 한마당

전통문화 계승발전, 다양한 체험 활동도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3일 국가 중요 무형유산인 고싸움놀이의 계승·발전 위해 오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칠석동 고싸움테마파크 일원에서 제43회 고싸움놀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싸움놀이는 벗짚으로 만든 대형 고를 맞부딪히면서 상대방과 힘을 겨루는 전통 대동놀이로, 풍년과 마을의 안녕, 공동체 정신 함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웃돌 달빛 속에 세계와 하나되다'로, 칠석동 마을 주민들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체험형 축제로 펼쳐진다.

특히 칠석동 밤 하늘을 수놓을 달집 태우기와 불꽃놀이를 비롯해 퓨전 국악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접목

해 모든 세대가 즐기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첫날에는 이튿날 개막식에서 펼쳐지는 남도민요 굿 마당 등 각종 공연의 맛보기 무대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전래놀이 대전 예선전 및 고싸움놀이 끝돈벨 놀이마당을 진행한다.

둘째 날인 3월 1일에는 종일 떠들썩한 무대가 이어진다.

오전 11시 30분부터 해금 연주단 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 판소리 창극 공연, 민요 굿 마당, 대금 연주를 진행하며, 국가 무형유산인 남사당패 줄타기와 북청사자놀이, 버나놀이까지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전혜경 기자

보다나인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어 금이 있습니다 **농어**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